

중국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에 대한 고찰*

장 루 이
(부산외대)

1. 서론

언어예술이자 문화의 중요한 표현 매체인 문학은 수백 년 동안 번역을 통해 민족과 민족 간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왔고, 인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문학작품 속 시대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민족 등 특징이 내포되어 있어 예부터 문학작품을 통해 외래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하며 배워왔다.

중국의 문학번역은 2000여 년 전 한(漢)나라 시기의 불경번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불경의 번역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문질지쟁’¹⁾이 벌어졌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문질(文質)’의 개념은 공자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인데, 공자는 “소박함이 아름다움을 압도하면 조야해 보이고, 아름다움이 소박함을 압도하면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움과 소박함을 겸비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자가 제창한 ‘문질(文質)’의 개념은 원래 ‘사람이 되는 기준’을 뜻하는데, 후에 ‘문(文)’은 ‘문체’ 즉 ‘문학 작품의 유형’, ‘질(質)’은 ‘실질’ 즉 ‘문학작품의 내용’으로 새로운 뜻을 부여

는데, 이는 번역의 ‘의역’과 ‘직역’에 대한 심미적 기준의 윤곽을 그려냄과 동시에 중국 전통 번역 사상의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 당(唐)나라 시기에 불경번역은 정점에 이르고, 고명한 승려이자 불경 번역가인 현장(玄奘)이 ‘5대 번역 원칙’²⁾을 제시함으로써 ‘문’과 ‘질’의 논쟁을 끝내고 ‘문질통일’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음역’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의 문학번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근대에 들어 대량의 서양 문학작품이 번역을 통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신·달·아(信·達·雅)’, ‘신사(神似)’, ‘화경(化境)’ 등 번역관이 잇따라 등장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전통 문학번역이론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중핵적인 초석을 다졌다.

이처럼 문학번역비평은 문학번역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 존재하였고, 문학의 교류와 문학번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 문학번역 사상이 문학번역의 성장에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서양처럼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중국 내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문학번역비평의 이론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번역의 품질 향상과 ‘문학번역을 위한 방향성 제시’³⁾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향후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려면 지난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까지 중국의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되

받으면서 ‘문(文)’과 ‘질(質)’의 관계 또한 ‘형식’과 ‘내용’의 관계로 발전되었다(명상위(孟祥宇), 2014: 11). 본 논문에서 말하는 ‘문질지쟁’은 불경번역에 대한 지겸과 유지난의 반대되는 비평 입장이다. 지겸과 유지난은 중국 고대 불경 번역 초기 ‘문질지쟁’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겸은 문장의 운색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동시에 언어표현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반면, 유지난은 음역, 호어의 번역과 언어의 소박함을 강조한다(장루이 2017: 116).

2) 첫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번역하지 않는다(秘密故不翻).
둘째, 의미가 다양할 때 번역하지 않는다(多含義故不翻).
셋째, 중국에서 없는 것을 번역하지 않는다(無此故不翻).
넷째, 기준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다시 번역하지 않는다(順古故不翻).
다섯째, 존중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生善故不翻).
3) 給文學翻譯一個方向(쉬쥘(許鈞) 2010 :255)

었다.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예정이다. 첫째, 관련 영역의 연구물을 수집한다. 둘째, 수집된 연구물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범위를 확정한다. 셋째,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을 제시한다.

2.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이론연구 현황

우선 연구 영역의 경우, 중국학계의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 현황을 고찰하고자 이와 관련된 논문을 연구범위로 정하였고, 현재까지 중국학계에서 ‘문학번역비평’을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 총 97편을 수집하였다⁴⁾. 다음 도표를 통해 논문의 연대별 발표 현황과 중국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중국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의 현황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논문 편수	학위	0	0	1	1
	박사 학위논문				
논문	우수 석사 학위논문 ⁵⁾	0	0	9	0
	학술지 논문	1	11	33	41
합계		1	11	43	42

수집한 자료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문학번역비평에 관련된 논문은 1편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내의 정치적인 영향으로 학술계가 부득불 공백 시기를 보내야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4) 필자는 중국의 권위 있는 공식 정보사이트 ‘知網(www.cnki.net)’를 통해서 검색하였다. ‘문학번역비평’을 논문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총 475편이고, 논문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총 97편임을 확인하였다(검색날짜: 2018년 8월 2일)
5) ‘知網(www.cnki.net)’에서는 우수 석사 학위논문만 수록되어 있다.

1990년대부터 논문의 발표 수량이 증가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까지 등장하였다. 논문 수량 또한 43편에 달하는 등 연구의 종류와 수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추세는 2010년대까지 유지되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물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문학번역비평 이론으로서 서양 이론의 적용 양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문학번역비평의 학술 저서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문학번역비평의 원칙과 기준을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 도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표 2〉 중국학계 문학번역비평의 연구 내용 현황

연구 내용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서양 이론의 적용 양상 연구	스코포스 이론		0	0	6	11	17
	기타 서양 이론			0	10	7	17
문학번역비평 학술 저서의 소개	『문학번역비평연구』(文學翻譯批評研究)		0	5	0	1	6
	『문학번역비평논고』(文學翻譯批評論稿)		0	0	5	0	5
문학번역비평 기준의 탐구			1	4	13	7	25
합계			1	9	34	26	70

현재까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서양 이론의 적용 양상에 관련된 논문으로 모두 34편이 발표되었고, 97편의 논문 가운데 35.1%를 차지한다. 화용론, 수용미학, 의사소통행위론, 상호텍스트성, 스코포스 이론 등의 서양 이론이 등장하였으며, 그중에서 스코포스 이론의 적용 양상에 관한 학술논문이 17편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기타 서양 이론의 적용 양상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스코포스 이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코포스 이론이 번역전략에 더 가까워 문학번역비평 이론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의견도 존재하지만, 본 논문은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이론연구 현황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연구 상황을 사실대로 분석하고, 해당 논문의 연구대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분야는 문학번역비평 기준에 대한 탐구로 총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97편의 논문 가운데 25.8%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문학번역비평 학술 저서와 관련된 논문 중『문학번역비평연구』에 관한 논문은 6편, 『문학번역비평논고』에 관한 논문은 5편으로 모두 11편에 달하며, 97편의 논문 가운데 11.3%를 차지한다. 이상으로 97편의 연구물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던 세 가지 유형의 논문은 총 53편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및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1 서양 이론의 적용 양상에 관한 연구

스코포스 이론은 1980년대 독일의 번역학자 라이스(Reiss)와 페르메르(Vermeer)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스코포스 이론의 적용 양상에 관한 핵심 학술지 『외국어 및 외국어 교육』(外語與外語教學)에서 발표된 우은권, 가우샤잉(文軍, 高曉鷹 2003)과 리광룡(李廣榮 2011)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은권, 가우샤잉(2003)은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이 스코포스 이론과 ‘충실성’ 원칙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번역자는 우선적으로 번역의 목적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번역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비평자는 TT의 번역전략이 적당한지를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해당 TT가 예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둘째, 문학번역비평에서 ‘ST중심’ 비평 관념을 ‘TT중심’ 비평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충실성’ 원칙은 스코포스 이론에 대한 보충이며 극단적인 ‘역자중심’의 비평원칙을 피할 수 있다. 번역비평에서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충실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저자는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고, 스코포스 이론으로 장구루어(張谷若)와 우디(吳笛)의 『Tess』 영역본을 비평하였다. 저자는 장구루어가 해당 작품과 저자를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번역을 시작한 것이고, 우디는 중국의 독자가 『Tess』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번역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장구루어가 영어의 구조를 유지하였지만 중국어 독자를 위해 중국식 표현을 대량 사용하였기 때문에 ‘충실성’ 원칙을 어긴 번역

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리광룡(2011)은 일부 학자들이 하나 또는 몇 가지 주장만으로 해당 이론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면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비평으로 적용시킨다면 매우 주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은권, 가우샤잉(2003)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우선, 역자는 ‘TT’가 ‘ST’저자의 의도와 상이할 경우 ‘ST’내용을 바꾼 원인을 저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충실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번역 목적에 대해서 두 역자는 모두 해당 작품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독자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즉 ‘ST’의 기능을 ‘TT’에서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번역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충실성’ 원칙의 개입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은권, 가우샤잉(2003)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두 연구자의 논문은 17편의 학술논문에서 가장 구체적이며 실속 있는 연구로 여길 수 있다. 이외의 논문들은 글자 수가 적게는 2000자 많게는 5000자이며, 내용면에서 볼 때 우은권, 가우샤잉(2003)의 연구를 요약하거나 스코포스 이론의 탄생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이론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볼 때 독창성이 부족하고 친필일률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문학번역비평 학술 저서에 관한 연구

2.2.1 『문학번역비평연구』에 관한 연구

『문학번역비평연구』는 1992년 쉬권(許鈞)에 의해 출판된 문학번역비평 학술 저서이며, 총 13장으로 구성된다. 1장부터 4장까지 문학번역비평의 기본 문제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5장부터 13장까지 앞서 제시한 번역비평방법으로 번역 작품(9장부터 13장은 명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영역본)을 비평하였다. 쉬권은 TT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에서 떠나 번역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입체적인 개념인 사유층위, 의미층위와 심미층위 등 세 가지 층위가 번역과정에서 하게 되는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쉬권(1992)의 학술 저서에 대한 연구는 리우핑(劉鋒 1993), 왕디안중(王殿忠 1993), 사우핑(曉風 1994), 왕커페이(王克非 1994), 무레이(穆雷 1994), 저

우싱양(周興陽 2018) 등 6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발표 순서대로 살펴보면, 리우핑(1993)은 문학번역비평 이론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쉬권(1992)의 학술 저서의 창의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샤우핑(1994)은 쉬권(1992)이 이론적으로 문학번역의 본질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비평방법을 규범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왕커페이(1994)는 쉬권(1992)의 학술 저서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공정한 문학번역비평 방법을 탐구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동시에 중국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깊은 사고를 일깨웠다고 하였다. 무레이(1994)는 쉬권(1992)이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공백을 채웠고, 저명한 번역 작품 또한 과감하게 비평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함으로써 문학번역비평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우싱양(2018)은 『문학번역비평연구』의 서평으로서 저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저서가 향후 문학번역비평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전반적으로 쉬권(1992)의 『문학번역비평연구』 학술 저서에 관한 6편의 논문은 다양한 시각으로 저서의 내용, 특징, 영향, 가치를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2.2.2 『문학번역비평논고』에 관한 연구

『문학번역비평논고』는 2006년에 출시한 왕홍인(王宏印)교수의 연구 성과이며, 1992년 출판된 『문학번역비평연구』에 이어 문학번역비평 분야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 두 번째 학술 저서이다. 이 저서는 총 9장으로 구성되며, 이론 구성은 다음의 여덟 부분이 포함된다. 첫째, 문학번역비평을 위한 이론 준비, 둘째, 문학번역비평의 특징, 유형 및 기능, 셋째, 문학번역비평의 방법 및 절차, 넷째, 비평 원칙, 기준 및 등급 평정, 다섯째, 텍스트, 문체 및 상호텍스트성, 여섯째, 문화의 참여, 일곱째, 작품의 유형, 여덟째, 학과의 지위 및 향후 전망이다. 이 저서에서 저자는 중국과 서양의 철학, 문학, 번역학을 종합하여 문학번역비평의 기본적인 이론을 깊이 탐구하는 동시에 문학번역비평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나타난 문학번역비평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연구와 감상이 결합된 문학번역비평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문학번역비평 이론 구조를 수립하였다.

현재까지 『문학번역비평논고』에 관한 논문은 총 5편으로 확인되었는데, 발표 순서대로 살펴보면, 양즈지안(楊自儉 2006)의 논문은 『문학번역비평논고』의 서문으로서 그동안 번역비평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 번역비평의 발전 방향을 내다봤다. 그리고 천다량(陳大亮 2007)은 문학번역비평의 특징, 방법 및 실행 절차, 상호텍스트성, 문화의 참여 등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일부 이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과 문학번역비평 이론 체계 가운데 장과 절의 나뉘임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연구의 한계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리정완, 한즈화(李正栓, 韓誌華 2007)는 『문학번역비평논고』에서 문학번역비평의 체계 구축, 번역의 등급평정 시스템 형성, 문화 참여에 대한 연구 확대 등 세 부분을 살펴보고, 왕홍인 교수의 저서가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 연구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왕홍타오(王洪濤 2007)는 중국과 서양, 기존의 이론과 향후 전망, 이론 연구와 작품 감상, 비판과 이론 구축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문학번역비평논고』를 살펴보고, 왕지안핑, 리우웨이(王建豐, 劉偉 2009)는 이론의 과감한 설계, 엄밀한 논증, 합리적인 이론 체계 구성, 문학번역 비평학의 수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학번역비평논고』를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5편의 논문은 다양한 시각에서 『문학번역비평논고』를 소개하고, 학술 저서로서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쉬권(1992)의 『문학번역비평연구』에 관한 논문처럼 단지 소개와 평가에 그쳤고, 연구의 깊이와 가치, 학계에 대한 기여도 부족 등의 한계점을 남겼다.

2.3 문학번역비평 기준에 관한 연구

1992년 쉬권의 『문학번역비평연구』가 출판된 이후 중국학계에서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졌다. 연구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총 25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음 도표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중국학계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에 관한 연구 현황

연구 유형 \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박사논문	0	0	0	1	1
석사논문	0	0	5	0	5
학술논문	1	4	8	6	19
합계	1	4	13	7	25

위 도표를 통해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스키포스 이론의 적용과 문학번역비평 학술 저서에 대한 연구에서 학술논문만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25편의 논문에서 학술논문 19편 이외에 박사학위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5편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중국 문학번역비평 연구의 초점과 방향을 나타내 보이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우선,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은 학술논문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문학번역비평의 기준 탐구에 관한 학술논문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개인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충실성’ 원칙을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으로 제의하는 것이다. 셋째, 서양의 스키포스 이론, 역동적 등가 이론, ‘신·달·아’ 등 이론들을 조합하여 비평기준으로 삼아 문학 번역 작품에 적용시켜 비평하는 것이다. 이상의 학술논문은 중국과 서양의 이론을 모두 다룬 만큼 연구의 영역과 시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한 제한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에시안즈(崔賢植 2013)는 중한문학번역비평 연구를 주제로 문학번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번역이론을 우선 검토하고, 문학번역과 번역비평의 주요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며, 소설 『인생』(活着)의 두 가지 한국어 역본에 대해 역자, 번역 전략, 독자의 수용 등 측면에서 비평하였다. 제3장 문학번역비평 이론 부분에서 저자는 문학과 문학번역, 번역비평 이론으로 나누어 서양,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론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가 제시한 번역비평의 틀, 비평의 분류 등 자료를 인용하고 종합한 것에 그쳤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

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석사학위논문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5편의 석사 논문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고 저자는 모두 영어 전공자임으로 서양 이론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한 특징이 있다. 논문의 발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샤우칭권(邵成軍 2003)은 문학번역비평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논문을 시작하였고, 번역비평과 문학번역비평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 문학번역비평의 특징, 유형 및 기능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 문학번역비평과 문학번역기교 간의 차이점, 문학번역비평과 문학번역이론 간 차이점을 분석한 후에 문학번역 이론에서 문학번역비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샤우칭권(2003)의 연구는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구조를 탐구하는 것보다 문학번역, 번역비평, 문학번역비평 등 개념을 종합하고 규명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문학번역비평 이론의 틀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샤우쉬라이(肖水來 2003)는 현재까지 중국의 번역비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번역비평 특히 문학번역비평이 이론 구축과 실무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평한 작품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비평의 질 또한 낮으며, 아직까지 비평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어 ‘충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비평 모델인 ‘저자 중심’, ‘텍스트 중심’, ‘독자 중심’은 본래 연결되어야 하는 저자-텍스트-독자(역자)를 분리하였기에 일방적인 ‘내레이션’ 밖에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저자는 해석학 이론을 도입하여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해석학 이론의 지도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샤우쉬라이(2003)의 연구는 일방적인 ‘내레이션’ 형식의 비평이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석학 이론을 도입하였지만, 결론에서는 새로운 비평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새로운 비평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제의에서만 그치고 말았다.

한편, 저우하오권(周昊俊 2009)은 중국과 서양의 비평이론의 발전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번역비평이론과 번역이론 간의 연관성, 번역비평의 원칙, 비평의 주체와 비평의 대상을 검토한 후 각 학파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 원칙인 ‘신·달·아’를 소개하고 『홍루몽』(紅樓夢)의 두 가지 영역본에 대한 비평을 적용시켰다. 저우하오권(2009)의 연구는 비록 앞부분에서 서양의 이론들을 많이 언급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원칙인 ‘신·달·아’로 되돌아갔다. 서양 이론에 착안하고 문학번역비평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기가 고무적이지만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에만 그친 후, 또다시 ‘신·달·아’로 돌아간 것이 아쉬웠다.

루징(盧靜 2003)은 서양 학파들의 이론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새로운 비평 방법인 ‘저자·역자’, ‘독자’를 제외한 후에 이를 『요재지이』(聊齋誌異)의 영역본에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비평하였다. 루징(2003)의 연구는 서양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비평방식을 제시한 점에서 볼 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양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이론에 대한 종합이라는 한계점을 남겼다.

천잉(陳瑩 2004)은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독자의 반응’ 및 ‘텍스트의 최고 기준’에 의한 새로운 비평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독자 반응’의 경우, 니다(Nida)의 역동적 등가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고, ‘텍스트의 최고 기준’의 경우, 텍스트의 형식과 스타일 등을 말한 것이다. 천잉(2004)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비평 시스템을 제시한 것이 석사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있으며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비평 시스템의 윤곽만 그렸을 뿐 실속이 부족한 아쉬움을 남겼다.

3. 중국 문학번역비평 이론연구의 과제 및 기준 정립

3.1 선행연구의 성과 및 한계

중국에서 문학번역비평 이론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고,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서양 이론의 영입과 연구이다. 확정된 97편의 연구물에서 스코포스 이론의 적용 양상에 관한 논문 17편을 포함하고, 서양의 번역이론에 근거하여 문학번역비평을 연구하는 논문은 총 30편에 달하며, 전체 논문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학계에서 서양의 번역비평 이론을 중요시하고 활발하게 연구하

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학술 저서의 출판과 학계의 연구 열정이다. 『문학번역비평연구』와 『문학번역비평논고』는 중국에서 문학번역비평 분야에서 출판된 영향력이 매우 큰 연구 성과이며,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학계에서 두 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술 가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저서가 출판된 후, 학계에서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연구의 열정이 더욱 고조되면서 두 저서에 관한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확립과 발전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셋째, 문학번역비평 기준의 탐구와 향후 연구 방향성 제시이다.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을 탐구하는 논문은 97편의 논문에서 가장 많은 25편이 확인되었다. 학위논문의 편수(박사 학위논문 1편과 석사 학위논문 5편) 또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만큼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연구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번역비평의 이론 구조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 기준인 ‘신·달·아’ 뿐만 아니라 서양의 번역이론, 문학번역이론, 번역비평이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중국 문학번역 비평연구의 중요한 초석이자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학계에서 문학번역비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왔으며, 학술 저서와 논문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학번역비평 연구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한계점 또한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서양의 다양한 이론을 도입하여 문학번역비평 이론으로 삼아 중국 문학작품의 영역본 또는 서양의 문학작품의 중역본을 비평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이론에 대한 소개, 평가에 머물러 있고, 해당 이론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장취의(斷章取義)로 옮겨 비평에 적용한 결과 과도하게 주관적인 비평 결론이 나온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문학번역비평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문학번역비평연구』 및 『문학번역비평논고』와 같은 학술 저서뿐만 아니라 문학번역비평의 원칙, 기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논문연구 또한 중요하다. 소개와 평가를 넘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중국 문학번역비평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논문이 많

이 나오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저우하오쥘(2009)의 연구를 비롯하여 중국의 전통 번역 사상과 서양의 비평이론을 융합하여 탐구하는 이론연구로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지만, 또다시 ‘신·달·아’ 혹은 ‘충실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중국의 문학번역의 현실 수요를 고려하고 전통 번역 사상을 중요시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지만, 낯이 새롭게 변화해가는 지금 시대에서 문학번역 또한 새로운 요구를 호소하고 있다. 전통을 고집하는 것보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3.2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 정립

이상으로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거둔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일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중국 문학번역비평 기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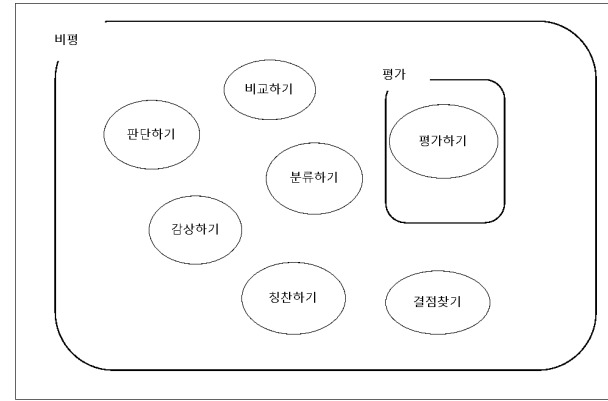
첫째, 일부 연구에서 비평대상 작품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지적은 번역비평인가 아니면 번역평가인가?

둘째, 문학번역비평은 무엇을 비평하는 것인가? 중국에 적용되는 문학번역비평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셋째, 현재까지 비평의 내용, 비평의 기준과 원칙 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등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비평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해야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번역 품질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등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하게 된다.

우선, 번역비평과 번역평가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한내(2015: 15)에 따르면 번역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번역비평은 번역 현장에서 일하는 번역자를 대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분석을 위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서 비평과 평가의 범주에 대해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표 4〉 번역비평과 번역평가의 범주 비교



〈표 4〉를 통해 번역비평은 번역평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번역평가보다 훨씬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번역비평의 목적은 해당 번역 작품을 비평함으로써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번역평가는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학작품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은 번역비평이 아닌 번역평가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비평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번역 품질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6)

번역비평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은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7) 필자는

- 6) 유한내(2015: 16)에 따르면 문학텍스트에 대한 문학비평이 어느 작품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작품마다 가지는 미학적 가치와 특성,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 작가고유의 문학성, 즉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처럼 문학번역 역시 평가보다는 비평의 관점을 더욱 필요로 한다.
- 7) 창명즈(方夢之 2004: 346)에 따르면 번역비평은 일정한 실천수단과 이론목적 기능을 가진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가치관을 전제로 구체적인 번역현상(역자와 번역이론 포함)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술행위이자 심미적 평가와 과학적 판단의 유기적인 통일체이다(翻譯批評是一種具有一定實踐手段和理論目標的精神活動，是從一定的價值觀念出發，對具體的翻譯現象(包括譯者和譯論)進行分析和評價的學術活動，是審美評價與科學判斷的有機統一). 양샤오룽(楊曉榮 2005: 3)에 따르면 번역비평은 일정한 번역기준에 의하여 논증방법에 따라 번역물에 대해 분석하고 평론하며 평가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작품의 여러 역본에 대한 비교를 통해 번역에서 나타난 현상

쉬쥘(2003: 403)이 제시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전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번역비평의 개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쉬쥘(2003: 403)에 따르면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번역비평은 번역에 대한 이해와 평가이며, 협의적 의미에서 볼 때 번역비평은 번역활동에 대한 이성적 반성과 평가로서 번역 현상, 번역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번역의 본질, 과정, 기교, 전략,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또한 포함된다.⁸⁾

번역비평의 개념에서 ‘문학’의 시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번역비평은 무엇을 비평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본다. 우선 문학은 문화의 특수한 표현과 언어 예술만큼 다른 문화 및 언어권으로 전해질 때 해당 문화와 언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번역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문학번역비평 방법론은 모든 문화와 언어의 번역에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 문학작품의 해외번역과 해외 문학작품의 중국어 번역을 비평할 때 중국의 문화와 언어의 특수성, TL의 문화와 언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피지기라는 말처럼 시작단계에 처해 있는 중국 문학번역비평 연구는 먼저 중국 문학 속의 문화와 언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중국문학의 해외번역과 해외문학의 중국어 번역에 요구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문학과 문학번역에 대해 전통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문학번역에서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첫 문학이론비평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 미학 사상 ‘신·달·아’, ‘신사(神似)’와 ‘화경(化境)’을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 기준과

에 대한 평론이다(依照一定的翻譯標準, 採用某種論證方法, 對一部譯作進行分析、評論、評價, 或通過比較一部作品的不同譯本對翻譯中的某種現象做出評論). 샤오웨이칭(肖維青 2010: 29)에 따르면 번역비평은 번역연구의 중요한 일부로서, 비평자가 번역연구 및 기타 관련 이론에 의거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번역현상(번역물, 역자, 번역활동, 번역이론, 번역과정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이다(翻譯批評, 是翻譯研究的一個重要分支, 是批評者運用翻譯研究以及其他相關理論, 或者參照一定的標準和尺度, 對具體的翻譯現(包括譯作、譯者、譯事、譯論和翻譯過程等)進行的分析和評價).

8) 從廣義上講, 翻譯批評就是理解翻譯與評價翻譯。從狹義上講, 翻譯批評是對翻譯活動的理性反思與評價, 既包括對翻譯現象、翻譯文本的具體評價, 也包括對翻譯本質、過程、技巧、手段、作用、影響的總體評析。

더불어 중국의 문학번역 특수성을 고찰하고 문학번역비평의 영역과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심조룡』은 남북조 시대 유협(劉勰)에 의해 작성된 문학이론 비평저서인데, 이론 구조가 체계적이고 엄밀하며 논술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육관설(六觀說)’ 즉 ‘관체위(觀位體)’, ‘관치사(觀置辭)’, ‘관통변(觀通變)’, ‘관기정(觀奇正)’, ‘관사의(觀事義)’, ‘관공상(觀宮商)’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문학번역비평의 대상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관체위’는 체재 즉 문학작품의 표현 양식을 관찰한다.

둘째, ‘관치사’는 작품의 언어 특징을 관찰한다.

셋째, ‘관통변’은 언어표현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는가를 관찰한다.

넷째, ‘관기정’은 작품의 문장표현이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인지를 관찰한다. 다섯째, ‘관사의’는 작품 속의 인물, 물건, 사건, 경치 등 주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실생활을 반영하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다.

여섯째, ‘관공상’은 언어의 음악성 즉 언어의 리듬감과 전달되는 감정이 일치하는지를 관찰한다.

이상 ‘육관설’에서 ‘관체위’, ‘관통변’, ‘관사의’는 작품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관치사’, ‘관기정’, ‘관공상’은 작품의 형식을 말하고 있다. 특히 ‘공상’ 즉 리듬감 및 운율이 완벽한지는 중국 고대 시와 사부터 현대 산문까지 가장 중요한 비평기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적인 요구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리의 운율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미학 사상인 ‘신·달·아’와 ‘신사’, 마지막으로 ‘화경’을 보도록 한다.

‘신·달·아’의 경우, 중국의 근대 학자 옌푸가 19세기에 제시한 번역관이다. 그는 당시 부패에 빠져 있는 청(淸)나라 사대부들을 일깨우고 서양의 선진적인 사상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영국의 생물학자 허슬리의 명저 『진화론』(天演論)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역자 설명』에서 그의 번역 철학을 서술하여 번역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즉 신·달·아’를 제시하였다. 10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신·달·아’를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 ‘달’은 문장의 매끈함, ‘아’는 언어표현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뜻한다.

‘신사’는 푸레이(傅雷)가 1951년 『고리오 영감·개역본 서문』(高老頭·重譯本序)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번역관이며, ‘신·달·아’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효과를 따지면 번역은 그림을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외형의 유사성)’가 아닌 ‘신사(내면의 유사성)’를 추구해야 한다.⁹⁾

“번역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사실 매우 간단한데, 신사(神似)를 중시하고 형사(形似)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¹⁰⁾

푸레이는 ‘신사’와 ‘형사’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신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경’의 의미를 보도록 한다. 이는 첸중수(錢鐘書)가 1960년대 『린수의 번역』(林紓的翻譯)에서 제시한 문학번역 사상이다.

문학번역에 있어 최고의 목표는 ‘화(化)’이다. 한 나라의 문자를 다른 나라의 문자로 바꿀 때 언어 습관의 차이로 인한 생경하고 어색한 표현이 없고, 원문의 운치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으면 ‘화경(化境)’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¹⁾

첸중수는 ‘화경’을 번역의 최고 ‘경계(境界)’라 여기고, 번역문이 독자에게 원문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번역의 ‘경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문심조룡』의 육관설, ‘신·달·아’, ‘신사’, ‘화경’ 이 말하는 중국의 전통 번역 기준은 서양 번역이론처럼 체계화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기에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문학번역비평 기준으로서 역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네 가지 전통 번역관은 모두 언어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9) 以效果而論，翻譯應當像臨畫一樣，所求的不在形似而在神似(리우미칭(劉宓慶) 2005).
 10) 愚對譯事看法實甚簡單：重神似不重形似(티안진핑(田金平) 1999: 93).
 11) 文學翻譯的最高標準是‘化’。把作品從一國文字轉變成另一國文字，既不能因語文習慣的差異而露出生硬牽強的痕跡，又能完全保存原有的風味，那就算得入於‘化境’(리우미칭 2012: 57, 장루이 2017: 124).

는 현대 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광치안(朱光潛)은 1980년대 ‘번역미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번역은 미학을 비켜 갈 수 없다(翻譯繞不開美學)”라고 제창한 바 있고, 리우미칭은 『번역미학이론』과 『번역미학도론』을 통해 ‘번역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고 번역 영역에서 ‘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쉬권(舒賓)이 『문학번역비평이론』에서 제시한 번역의 세 가지 층위 중 세 번째가 바로 미학층위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번역에 대해서 언어의 ‘미’를 많이 추구하고 ‘미’를 통해서 문학과 문화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문학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학번역비평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은 쉬권(2003: 403)이 제시한 번역비평의 개념을 따르며, 번역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번역을 통해 문학작품 속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움의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

〈표 5〉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

분류	내용	항목
형식적인 미		시각적인 미와 청각적인 미
		수사법으로 이룬 문장구조의 미
비형식적인 미		감정의 전달
		문화의 재현
영향 및 가치		번역전략의 가치 및 학문에 대한 기여

구체적인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TT의 형식적인 미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은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의 의미와 소리는 중국 문학과 중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尋尋覓覓，冷冷清清，淒淒慘慘戚戚’¹²⁾처럼 첩어(疊語)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 미감뿐만 아니라 저자의 고통과 망국의 비통한 심정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첩어뿐만 아니라 대구법, 해음쌍관, 성조와 운율은 모두 중국 문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심조룡』의 ‘관공상’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문학번역에서 핵심

12) 이청조(李清照)의 「성성만」(聲聲慢)

적인 기준이다.

다음으로 비형식적인 미에 대한 평가이다. 감정의 전달은 현재까지 대부분 비평기준의 항목으로 자리 잡아 왔고, 문화의 재현은 이국화와 자국화 등 서양 이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 사회 민족 특징 또한 매우 뚜렷하다. 문학 작품이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중국 문학은 구절구절 중국의 다양성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번역을 할 때, 글자 속 숨어 있는 민족문화의 색깔과 감정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산하향’(上山下鄉)¹³⁾, ‘삽대(插隊)’¹⁴⁾, ‘하방(下放)’¹⁵⁾은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외국어로 옮길 경우 문화의 희석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문학작품의 가치성을 유지하여 문화의 참여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문학번역비평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의 영향 및 가치는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번역전략과 언어표현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있는가, 이러한 시도는 번역이론에 대해 혁신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 항목은 번역의 품질 향상과 문학번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번역비평의 목적에 부합하고, 비평 행위의 가치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상술한 기준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학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기반으로 번역 비평의 등급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6〉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등급 분류

기준 등급	형식적인 미의 재현		비형식적인 미의 재현		학문에 대한 기여도
	시, 청각적인 미	문장구조의 미	감정의 전달	문화의 재현	
부족	재현 못함	재현 못함	재현 못함	재현 못함	낮음
일반	일부 재현	일부 재현	일부 재현	일부 재현	있음
우수	재현	재현	재현	재현	높음

- 13) 문화대혁명 후기에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과 산간벽지로 보낸 운동을 지칭하는 말.
- 14) 문화대혁명 기간 중 인민 공사(人民公社)의 생산대(生產隊)에 들어가 노동하거나 혹은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
- 15) 간부나 지식인들이 사상 단련을 위해 공장·농촌·광산 등지로 노동하러 가는 것.

부족: 시각과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였고,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였지만 구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작품의 문화 요소를 대부분 전달하였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번역 전략과 언어표현에서 색다른 시도가 없었다.

일반: 시각과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대부분 재현하였고,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구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였다. 작품의 문화 요소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감정을 비교적 충분히 전달하였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시도한 번역전략과 언어표현은 좋은 번역 효과를 얻었다.

우수: 시각과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재현하였고,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구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였으며, 작품의 문화 요소를 정확하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였다. 그리고 해당 내용의 예술적 가치를 재현하기 위해 시도한 번역전략과 언어표현은 번역이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고,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상으로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과 등급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지 해당 번역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한 번역평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중국의 문학작품 번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번역 작품의 미학적 가치 즉 문학성과 예술성을 종합적으로 비평하는 시각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번역비평은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TT가 ST의 미학적 가치를 재현하였는지, 이를 위해 번역자가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였는지, 해당 번역 전략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등 기본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해당 번역전략은 번역학과 더불어 문학교류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번역비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문학번역비평의 기준과 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4. 결론

이상으로 본 논문은 198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한 문학번역비평의 연구 현황, 성과, 연구 한계, 직면 과제를 고찰하고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과 등급 평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의 문학번역비평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서양 이론 또는 중국 국내의 이론 저서를 소개하고 평가하거나 기존 이론을 구체적인 번역 작품에 적용하여 비평하는 단계에 그쳐있다. 그리고 서양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빛나간 분석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구가 소개와 평가에 머물러 있어 연구의 깊이와 가치뿐만 아니라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중국 문학번역비평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논문이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문학번역비평은 서양 이론의 영입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문학은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으로 전해질 때 온전한 문학번역비평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끊임없이 서양의 이론을 영입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중국문화와 중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문학작품의 해외번역과 해외 문학작품의 중국어 번역을 비평할 때 적용되는 비평기준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필자는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번역비평 이론과 사상을 종합함으로써 중국 문학번역비평의 기준과 등급 평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학번역비평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기준은 엄밀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에 향후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라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방법론의 탄생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문학번역비평 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2000년대 문학번역비평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이며 폭넓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정연일, 남원준 (2006)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장예 (2017) 「고전문학작품 번역비평 방법론 정립과 적용: 『춘향전』을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유한내(2015)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위대한 개츠비』와 『로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이근희 (2007) 「스코포스 이론을 토대로 한 번역비평: 사례 연구 더빙 영화, <빨간 모자의 진실>」, 『번역학연구』 10(2): 61-82.
-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16(5): 89-112.
- Zhang Rui (2017) 「‘대음희성(大音希聲)’의 미학적 의미 재해석」, 『中國語文學誌』, 63: 7-29.
- 方夢之 (2004), 『譯學辭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劉宓慶 (2005) 『翻譯美學導論』,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怒安 (2005) 『傳雷談翻譯』, 遼寧: 遼寧教育出版社.
- 王宏印 (2006) 『文學翻譯批評論稿』, 上海: 上海外國語大學出版社.
- 肖維青(2010) 『翻譯批評模式研究』,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許鈞 (2010), 『文學翻譯的理論與實踐』, 南京: 譯林出版社.
- 許鈞 (2012), 『文學翻譯批評研究』, 南京: 譯林出版社.
- 楊曉榮 (2005) 『翻譯批評導論』,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崔賢植 (2013) 復旦大學, 「中韓文學翻譯批評研究」, 外國語言學及應用語言學, 博士學位論文.
- 孟祥宇 (2014) 「中國翻譯史上“文質之爭”對當今譯者的啓示」, 『文教資料』, 4: 11-12.
- 田金平 (1999) 「“論傳雷“神似”翻譯理論的價值」,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03: 92-93.
- 王宏印 (2002) 「參古定法,望今制奇——探詢文學翻譯批評的評判標準」, 『天津外國語學院學報』, 03: 1-5.

<분석대상 논문목록 (53편)>

陸肇明 (1989) 「文學翻譯批評的困境與突破」, 『中國翻譯』, 01: 9-11

沈培新, 徐育才 (1991) 「文學翻譯批評芻議」, 『長沙水電師院學報(社會科學版)』, 02: 116-118.

李文俊 (1992) 「也談文學翻譯批評」, 『中國翻譯』, 02: 11-12.

許鈞 (1992) 「關於文學翻譯批評的思考」, 『中國翻譯』, 04: 30-33.

劉鋒 (1993) 「構建文學翻譯批評理論的追求——評許鈞著《文學翻譯批評研究》」, 『語言與翻譯』, 03: 58-62.

王殿忠 (1993) 「翻譯理論研究中創造性的拓展——評許鈞的《文學翻譯批評研究》」, 『外語研究』, 04: 55-58.

王曉元 (1994) 「漫談文學翻譯批評」, 『外國語(上海外國語大學學報)』, 02: 19-21.

曉風 (1994) 「文學翻譯批評：對理論建構的期待——評許鈞著《文學翻譯批評研究》」, 『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02: 180-182.

穆雷 (1994) 「讓更多的人來關心文學翻譯批評事業——評介《文學翻譯批評研究》」, 『中國翻譯』, 03: 50-51.

王克非 (1994) 「關於翻譯批評的思考——兼談《文學翻譯批評研究》」, 『外語教學與研究』, 03: 33-36

封宗信 (1999) 「文學文體學——文學翻譯批評的試金石——評介《文學文體學與小說翻譯》」, 『中國翻譯』, 05: 40-42.

劉雲虹 (2002) 「解釋的合理性:文學翻譯批評的基礎」, 『外語與外語教學』, 05: 55-57.

王宏印 (2002) 「參古定法,望今制奇——探詢文學翻譯批評的評判標準」, 『天津外國語學院學報』, 03: 1-5.

王理行 (2003) 「忠實是文學翻譯的目標和標準——談文學翻譯和文學翻譯批評」, 『外國文學』, 02: 99-104.

吳南松 (2003) 「功能翻譯理論及其在文學翻譯批評中的適用性——以對晚清小說翻譯的批評為例」,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03: 69-73.

文軍, 高曉鷹 (2003) 「功能翻譯理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應用」, 『外語與外語教學』, 11: 48-52.

李景端 (2003) 「文學翻譯與翻譯批評」, 『中國圖書評論』, 11: 50-51.

趙征軍 (2005) 「文學翻譯批評範式論」,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01: 107-110.

楊自儉 (2006) 「簡論翻譯批評——《文學翻譯批評論稿》序」,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01: 52-54.

朱凡希, 王林 (2006) 「文學翻譯的危機與文學翻譯批評學科的構建」, 『甘肅社會科學』, 02: 46-48.

陳大亮 (2007) 「《文學翻譯批評論稿》評析」, 『中國翻譯』, 02: 38-42.

李正栓, 韓誌華 (2007) 「文學翻譯批評走向系統化、規範化的有益探索——評王宏印教授《文學翻譯批評論稿》」, 『社會科學論壇(學術研究卷)』, 05: 206-208.

王洪濤 (2007) 「西學與國學融會貫通 研究與鑒賞相輔相成——《文學翻譯批評論稿》評介」, 『外語與外語教學』, 09: 63-64.

王峰 (2007) 「以互文性理論構建文學翻譯批評體系」, 『商洛學院學報』, 03: 78-81.

劉桂蘭 (2008) 「文學翻譯批評本質探析」,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05: 14-17.

黃永存 (2008) 「德國功能派翻譯理論對文學翻譯批評的解釋力」, 『邵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02: 80-82.

劉嫦, 趙友斌 (2009) 「功能翻譯理論給文學翻譯批評的啓示」, 『外語學刊』, 02: 112-115.

王建豐, 劉偉 (2009) 「文學翻譯批評學誕生的宣言書——《文學翻譯批評論稿》評介」, 『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05: 129-130.

楊平 (2009) 「讀者反應批評——文學翻譯批評新視角」,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08: 36-40.

於連江 (2009) 「多維視角下的文學翻譯批評理論體系建構」, 『浙江教育學院學報』, 05: 48-53.

陳瑩 (2010) 「文學翻譯批評標準系統淺探」, 『科技信息』, 35: 313-314, 325.

李廣榮 (2011) 「文學翻譯批評中功能翻譯理論誤用個案分析」, 『外語教學理論與實踐』, 03: 87.

高寧 (2011) 「關於文學翻譯批評的學術思考——兼與止庵先生商榷」, 『東方翻譯』, 01: 4-8.

- 陳梅霞 (2012) 「功能翻譯理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應用」, 『中外企業家』, 06: 11-13.
- 胡作友, 李而聞 (2013) 「翻譯目的論視閥下的文學翻譯批評——以《格列佛遊記》為例」, 『合肥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02: 91-96.
- 宋小琴 (2014) 「功能翻譯理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應用」, 『考試周刊』, 85: 13.
- 李而聞, 胡作友 (2014) 「功能目的論指導文學翻譯批評的可行性」,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03: 224-225.
- 徐德榮, 江建利 (2014) 「論兒童文學翻譯批評的框架」, 『外語研究』, 02: 66-71.
- 鞏茗珠 (2014) 「文學翻譯的批評——評《文學翻譯批評概論》」, 『當代教育科學』, 12: 14-15.
- 劉雲虹 (2014) 「翻譯的挑戰與批評的責任——中國文學對外譯介語境下的翻譯批評」, 『中國外語』, 05: 88-95.
- 張蕓 (2015) 「基於文學翻譯批評探討功能翻譯理論誤用案例」, 『校園英語』, 25: 240-241.
- 冉詩洋, 鄭堯 (2015) 「中西文化差異視域下的文學翻譯批評——以《紅樓夢》的英譯為例」, 『長江師範學院學報』, 05: 83-87.
- 馬露露 (2016) 「功能翻譯理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應用」, 『時代教育』, 05: 35-37.
- 趙凱倫 (2016) 「淺析功能翻譯理論與文學翻譯批評」, 『當代教育實踐與教學研究』, 06: 6.
- 龔聰棕 (2016) 「基於功能翻譯理論下的文學翻譯批評」, 『語文建設』, 36: 88-89.
- 鄭欣 (2017) 「淺析功能翻譯理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運用」, 『校園英語』, 47: 249.
- 張曉東 (2017) 「“目的論”在文學翻譯批評中的應用——以De Profundis兩個譯本為例」, 『海外英語』, 10: 374-376.
- 邵成軍 (2003) 「文學翻譯批評的理論框架」,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 盧靜(2003) 「淺論文學翻譯批評」, 上海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 肖水來 (2003) 「試論文學翻譯批評模式」,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陳瑩 (2004) 「文學翻譯批評標準探索」,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 周昊俊 (2009) 「淺談文學翻譯批評模式」, 上海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 崔賢植 (2013) 「中韓文學翻譯批評研究——以小說《活著》韓譯本為中心」,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Criticism

Zhang, Ru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ese traditional literary translation has a long history, but it still can not form a theoretical system. At present, China is calling for a thorough study of the theory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terary translation, the voice of pointing out the direction for literary translation is becoming louder and louder. This study made a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research on the theory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in China, and summarized the achievements and existing problems.

This study found that the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in China can not get rid of the shackles of traditional translation thoughts and can not establish a new critical theory, which is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current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in China.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stays in the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Western theories, and the introduction and evaluation of relevant academic books in China. Although the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theory is not rare, it still fails to achieve a breakthrough.

On this basis, the author summarized the criticism objects of Chinese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and put forward the criteria and grading criteria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suitable for the current research situation in China.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standards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limits, tasks

▶ 주제어: 문학번역, 문학번역비평, 문학번역비평의 기준, 한계점, 과제

장루이

부산외국어대학교 G2융합학부 조교수

jangrui@daum.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학번역비평, 번역미학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